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주관 정책세미나 개최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플랫폼경제의 발전과 규제정책의 방향 〉

지난 2021년 12월 6일,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201호에서
‘플랫폼경제의 발전과 규제정책의 방향’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

최되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정수 교수의 개회사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조성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분석 과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곽노선 교수, 이창현 학·석사 졸업생, 2021 한국경제학술상 수상



〈 곽노선 교수 〉



〈 이창현 학·석사 졸업생 〉

본교 경제대학 곽노선 교수와 이창현 대학원 학·석사 졸업생(현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박사과정)이 국내 최대 경제학 학회인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1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하고

한국경제에 관한 경제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한국경제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석하여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물을 추천받은 후, 각 분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미시 분야, 거시 분야 각각 한 편의 수상 논문을 결정한다. 한국경제학회는 해당 논문이 지난해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연구해 저명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해 수상 논문으로 결정되었음을 밝혔으며, 지난 2월 10일 (목) ‘2022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운수 교수, 한국금융연구센터 제1회 청석상 수상



〈이운수 교수〉

본교 경제대학 이운수 교수가 지난 2월 25일 (금) 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제1회 청석상(靑碩賞)을 수상하였다. 청석상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 분야 등에 관한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중견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이운수 교수는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가계대출의 건전성 등과 관련해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의 최근 연구로는 2018년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에 출간한 『A Model of Entry, Exit, and Plant-Level Dynamics over the Business Cycle』(Toshihiko Mukoyama와 공저), 2021년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에 출간한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 분석: 사업체』(김원혁, 지정구 공저) 등이 있다. 이운수 교수는 2009년부터 본교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진입과 퇴출 양상이 지역 및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의 고용 및 생산성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전성훈 교수,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 선정



〈전성훈 교수〉

본교 경제대학 전성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영문 저서 "Antitrust Policy in Korea from An Economist's Perspective"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반독점정책의 발전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본 저서는 해

외의 경쟁법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의 발전을 소개하고,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법학자와 법을 집행하는 공정위 공무원 및 법률전문가들의 법경제학적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조직 경제학자들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실천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배 교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전현배 교수〉

본교 경제대학 전현배 교수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가공 부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배달 앱 이용 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취약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 전담하여 수요기관에게 필요한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지정된 공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총 예산액은 1,241억원이며, 높은 경쟁률 가운데 총 1만 466건 중 2,600건의 지원이 시행되었다. 전현배 교수와 양동운 학생은 신용카드 배달 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배달 앱 이용 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현주 교수, AI, 지리공간정보, 한국경제사 분야 국내외 지원 사업 선정



〈양현주 교수〉

본교 경제대학 양현주 교수는 AI, 지리공간정보, 한국경제사 분야 국내외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참여하게 되었다.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의 Network of Resources Sponsorship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향후 1년간 위성영상과 한국 전역의 격자 단위 자산, 부채, 소득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기계학습을 위한 전산 자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하였다. 해

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연구 과제로 MIT 대학의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s Global Seed Funds 통해 MIT Sustainable Urbanization Lab의 international collaborator로 위성 영상과 computer vision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역 단위 환경 파괴 예측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PI: Siqi Zheng, MIT). 경제사 부분에서는 영국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 Grant를 통해 런던정경대학교(LSE) 경제학과 연구진과 co-investigator로 한국의 1970년대 발전 경험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PI: Robin Burgess, LSE).

김성관 박사과정(지도교수 허정),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김성관 박사과정〉



〈허정 교수〉

본교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김성관 박사과

정생(지도교수 허정)이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지원사업'은 대학원 연구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7명의 박사과정생들이 선정되었다. 김성관 학생은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연구 인건비와 학술 활동 지원비로 총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성관 학생의 연구 주제는 "다국적 기업의 리쇼어링 전략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유슬기 박사(지도교수 전성훈), 한국산업조직학회 제16회 춘당 논문상 수상



〈유슬기 박사〉



〈전성훈 교수〉

본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생인 유슬기 박사(현재 성균관대 BK 연구원, 지도교수 전성훈)는 『극장의 공간경쟁과 가격차별: 2급 및 3급 가격차별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제16회 춘당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춘당 논문상은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발간하는 '산업조직연구'에 게재된 매년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선정해 수상하며 춘당 정병휴 교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슬기 박사후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극장들의 가격차별을 요일 및 시간대에 따른 2급 가격차별과 관객에 따른 3급 가격차별로 구분하여 각 가격차별에 따른 가격차이(disposition)가 공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상 논문은 유슬기 박사의 서강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 졸업 논문의 세 번째 챕터로 작성하였던 연구이다.

정임령 석사과정(지도교수 허정), 『2021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



〈 정임령 학생 〉



〈 허정 교수 〉

본교 경제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임령(지도교수 허정) 학생이 2021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Road Accessibilit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논문으로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재정학회에서는 후학 연구자 양성과 연구진흥을 위해 매년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대학원 세션을 마련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우수 연구논문을 시상해 왔다. 정임령 학생은 허정 교수와 함께 본 논문을 통해 도로망의 확장으로 인해 높아진 시장 접근성이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 이론과 사업체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특히 수출 사업체의 고용 증대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성인 석사과정(지도교수 허정), 연구후속세대 장학금 수여



〈 홍성인 석사과정 〉



〈 허정 교수 〉

홍성인 석사과정생(지도교수 허정)은 2021년도 본교 '연구후

속세대 장학금'을 수여받아 2021학년도 수업료 50%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수여 받게 되었다. 본교 허정 교수는 2021년도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업적평가 결과, 본교 상위 10% 해당 교원으로 선정되어 2021학년도 대학원 지도학생 1명에 대해 "연구후속세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추천된 홍성인 학생이 '연구후속세대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다

경제학부 남민혁(경제 15) 학생, 캐글(Kaggle) 데이터 분석 대회 우승



〈 남민혁 학생 〉

경제학과(컴퓨터공학·수학 다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민혁 학생이 지난 11월 16일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참여한 캐글(Kaggle) 주최 데이터 분석(Analytics) 대회에서 최종 우승했다. 캐글은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으로,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캐글이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환경 및 불평등'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이수형 교수와 남민혁 학생은 주어진 데이터에 경제학적 데이터를 결합해 코로

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학습 이용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민혁 학생은 유학 후 관련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강의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를 통해 배운 컴퓨터공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한 환경과 보건, 교육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 미친 현 상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경제학부 김명준(경제 17) 학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



〈 김명준 학생 〉

본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명준(경제 17) 학생이 지난 1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명준 학생은 2021년 기획재정부 14기 소셜 미디어 기자로 활동하며 Youtube와 기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였고, 경제 정책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획재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기자단 평가 기

준에 따른 연간 활동 평가 결과 김명준 학생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 기자로 선정되었으며 부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명준 학생은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자 활동에 임했다”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개최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홍보를 위해 Youtube에 출연한 것이다. 기자단 활동 중 홍보했던 정책이나 행사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경제학부 이태규(경제 21) 학생, 산업통상자원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회 금상 수상



〈 이태규 학생 〉

본교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태규(경제 21) 학생이 지난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5회 토론회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태규 학생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의제에 대해 중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고찰을 담

으며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규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로스쿨 진학 후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며 협상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년도 행정고시, 경제학 전공자 9명 합격

202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본교 경제학 전공자(1, 2 전공) 9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부문별로는 최윤설(사학/경제 09), 황민하(경제 11), 김성현(정치외교/경제 15), 이양우(경영/경제 15), 김동현(경제 16), 안정인(경제 16), 이주연(심리/경제 17) 학생이 일반 행정직에, 권태균(경제 12), 조연희(철학/경제학 13) 학생

이 재경직에 합격하였다. 이번 행정고시에는 총 10,989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본교는 이 가운데 11명(행정직 9명, 재경직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으로 2021년 11명으로 꾸준히 합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LET'S
celebrate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김성진(82학번)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왼쪽부터)양현주 교수, 이윤수 교수, 김성진 대표, 손성빈 교수, 이성원 교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강경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데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금융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덕분에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채권시장의 경우, 지수 기준으로 지난 50년 이래 올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어려운 국면이 도리어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전망과 이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미래에셋의 운용자산 규모는 250조로 국내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40%가 해외자산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를 운용하기 위해 15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채권운용부문의 운용 자금은 40조 수준인데, 이 중 20%인 8조가량이 해외 채권입니다. 해외 채권 자금의 비중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2/3를 해외 부문에 배치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에서 해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희 미래에셋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1988년 동원증권을 시작으로 2001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기신 후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채권 전문가로 활약하셨고, 지금은 자타 공인의 최고 자산운용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대표님을 한 분야에서 긴 시간 동안 성장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현업에 있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몸을 담았던 많은 부서에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와 동료들 만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혼자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주위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과거 동료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모색한 점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잘해도 평균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1993년에 동원증권 채권부에서 일할 때 저는 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 시장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들과 함께 책을 번역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해외투자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2006년부터 해외채권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6~7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채권 부문에서 AI팀을 만들어 운용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시간의 80% 이상을 자료를 읽는데 보냅니다.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들의 의견을 구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한 분야에서 긴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최근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채권시장도 불확실성이 클 것 같은데,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대표님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을 분석하려면 먼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통화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례 없는 높은 물가 때문에 연준이 5월, 6월 각각 50BP 정도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로 50BP만큼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으며, 금리 인상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

지만 위와 같이 물가만 잡고 보자는 행태는 결국 과잉 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언제쯤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 또한 제법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고 있고, 미국의 건축정책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재 시장은 상당 수준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이미 고점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에 AI를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강 경제는 AI금융 분야에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점에서 다른 학교 경제학과와 차별성이 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금융업계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매년 3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글로벌 top-tier 투자은행, 운용사 회사를 방문하면 인력, 시스템, 인프라 등에 상당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운용한 펀드를 판매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데이터와 모델에 기반을 둔 운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채권을 기초로 한 모델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팀을 조직했고, 6명 정도가 함께 공부해가며 모델을 만들고 현재는 자금을 투입해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을 꼽자면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엔지니어는 시장을 모르고, 애널리스트는 코딩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와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task force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의 질도 개선되고 있어 AI의 경쟁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서강대 학부생' 김성진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학창시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동시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그러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친구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주로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 만난 동기, 선배들과

교류해보니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의 경험이 대표님의 커리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을 때는 독후감을 썼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으면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썼었는데요, 심지어 독후감을 여러 번 썼었어야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글을 썼던 경험이 직장,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프라이즈 퀴즈를 자주 치렀는데요,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책을 덮게 하고 퀴즈를 냈었는데, 퀴즈 배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언제 퀴즈를 볼지 모르니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FA제도에다 학점까지 짜다 보니 성실하게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돌아보면 서강대학교에서 항상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직 생활에서 성실성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또한, 요즘에는 부전공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당시 서강대에서 경제와 경영, 회계를 같이 공부했던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후배인 많은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들이 졸업 후 금융업 분야 취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뒤를 잇는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서강경제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특히 금융업의 경우 거대한 시장을 혼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co-work 하는 능력을 키우고 team player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이익을 탐해 큰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신입사원이 입사 후 3~5년 뒤 연봉을 올려 이직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3~5년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해당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담은 조직이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하는 조직이라면 꾸준히 근무하여 loyalty와 더불어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면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임교원 인터뷰 : 손성빈 교수



〈 손성빈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손성빈이라고 합니다. 2012년 University California, Berkele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0년 가까이 중국 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서강대에 부임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 해외 유학을 떠난 이후 (간간이 한국 방문을 하긴 했지만) 완전 귀국을 하는 것은 15년여 만입니다. 많은 것이 새롭고 모르는 것이 많은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한국의 몇몇 학교에서 세미나도 해보고 교수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서강대는 확실히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학구적이고 진지한 분위기가 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오신 선배 교수님들과 구성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아직 학생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어 학생들에 대한 첫인상이 뚜렷하진 않지만, 학생들 역시 진지한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농담을 못 하겠어요) 얼른 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Financial Economics입니다. 우리말로 금융경제학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경제학과의 금융경제학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가 화폐의 수요와 공급,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금융규제와 감독 등인 데 반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따른 자산가격이론(asset pricing),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의사결정이론(corporate finance)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연구하는 Financial Economics는 재무경제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중국의 데이터로만 연구하였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자산시장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손성빈 교수님이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주식 및 채권 시장”과목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설명해주세요.

경제학과와 많은 학생이 졸업 후 금융권(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시장” 과목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금융권에서 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finance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혹은 자산시장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가격결정론”이라는 대학원 수업도 개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요?

제가 대학생이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와 곧이어 발생한 빠른 경기회복, 세기말 분위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확산 등으로 사회가 그야말로 ‘격변’ 하던 때였습니다. 90년대 말에는 여전히 학생 운동도 활발한 시기였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컸던 시기여서, 저는 대학생 시절에 참 갈팡질팡(혹은 방황) 했던 것 같아요. 학회 활동을 하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공부(주로 좌파사회주의)를 하며 정리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데모도 많이 했고(전경들과 싸워 보기도 하고), 또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료가 되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행정고시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클럽(당시에는 나이트클럽 이라고 부름)에 가서 놀기도 했고 방학 때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공부에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대학교의 전공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막연히 ‘경제’라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경제학과에 지원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진학 후 공부를 해보니 제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학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을 더욱 공부하는 방법으로 재경부문 행정고시를 치르는 것과 경제학박사가 되는 것을 당시 고려했는데, 고시 공부를 해보니 경제학 외의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괴로워서, 군입대 후 경제

학박사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재능과 흥미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분야든 여러분 각자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당장 빛나는 분야 보다는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강의계획서를 보면 경제학을 배우면 ‘anger management’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작성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요?

경제학은(특히 미시경제학은) 최적화이론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 인가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만큼 제한된 상황에서 저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들(운전할 때 내 앞을 끼어드는 차부터 시작해서 경직적이고 복잡한 행정 처리 구조를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함수는 무엇이고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됩니다. 비록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라고는 해도, ‘내가 그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순간적으로 생기는 화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anger management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강대의 학생들이 최적화하는 목적함수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나 가치도 함께 들어있길 희망합니다. 서강대 학부와 대학원생 분들은 향후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로 성장할 텐데, 늘 경제

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있으면 또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항상 고려하는 훈련이 되어있으면, 나중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인주의가 점점 극단적이 되어가며 남에 대한 배려나 관용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서강경제의 학생들이 합리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리더가 되어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그리고 더 넓게 경제학 분야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면서 배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할 때도 주어진 강의를 수동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궁금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찾아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학업 외의 삶의 많은 영역(취직, 승진, 연애, 결혼 등)에서도 주어진 것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뜻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 성취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서강칼럼 I : 유학을 준비하는 경제학도에게



〈 정임영 학생 〉

2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석사과정 정임영 입니다. 2016년도에 경제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한 게 엇그제 같은데 서강에서 사계절이 바뀌는 걸 6번이나 보았네요. 작년 가을에 경제학박사 지원을 한 후 감사하게도 여러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22년 가을에 미

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경제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유학을 나가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유학을 갈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뉴스레터에 기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견이고, 유학 준비에 정해진 레시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연구 경험을 쌓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학점은 이미 학부 졸업한 이상 통제할 수 없으니!). 1년 차에는 서툴지만 아이디어도 내보고, 여러 교수님의 RA도 해보았습니다. 경제학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교수님들과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때로는 교수님들끼리 미팅하는 데에 RA로 참여해 어깨너머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연구를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었고 이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끊임없이 압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아이디어가 대박 날 것 같다가도, 그다음 날에는 또 마음에 안 들고, 아침에는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그날 새벽에는 망할 것 같고, 그러다가 9월 정도부터 양현주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아슬아슬하게 초고를 완성해 유학 지원할 때 main research paper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과 고민은 Yale의 Mushfiq Mobarak 교수님의 트윗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Writing up your research is not at all "you must publish a paper". In fact, pursuing a creative, innovative idea far short of publishable sends a better signal than publishing something ordinary. 당연히 논문을 완성해서 저널에 투고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좋았겠지만,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내가 재미없는 논문은 남에게도 재미없다는 용감하고 조금은 무모한

(?)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제출했던 연구는 정말 단기간에 완성했기 때문에 "far short of publishable"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2년간의 경험과 노력이 녹아있는, 저만의 개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최근 경제학박사 유학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나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같은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고, 가르칠 학생을 뽑는다고보다는 본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을 정말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사과정의 연구 경험과 본인의 연구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connecting the dots'를 잘해서 본인을 매력적인 지원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재료인 'dot'을 무엇으로 채워 나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훨씬 낫겠지만, 단순히 CV 한 줄을 채우는 것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학 준비를 할 때 막막하다면 꼭 주변의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귀찮게 구세요! 처음 유학을 준비하면 학점, 외부장학금, RA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 2년은 모든 것을 해내기엔 너무 짧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경험자이신 교수님들이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동기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먼저 유학을 가신 선배님들이 서강의 이름을 빛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후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생일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 주신 허정교수님, 그리고 2년간 연구와 유학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양현주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특히나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칼럼Ⅱ: 공직의 꿈을 품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 김동현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경제학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서 연락을 받아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합격 수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 시험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합격 수기 등을 통해서 공부방법을 알아 가고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었기에 제 합격 수기 역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고, 수험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약간 일찍 이 시험을 진입하였으며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저는 19년 9월에 전역하여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20년 8월의 5급 공채 2차를 처음 치러 갔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시험에 정말 붙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컸고 그래서 누구보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아쉽게 떨어진 점수로 인해서 21년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초시 합격, 단기 합격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여러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 합격에 큰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방법입니다. 먼저 1차 과목의 공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은 PSAT입니다. PSAT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기출이 자잘한 실수, 함정을 통해 오답을 만들어내고자 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PSAT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고 실수한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적어 두고 이를 매일 읽음으로써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PSAT 공부 기간에는 매일 모의고사 한 세트씩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감, 스킬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과목의 공부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 직렬이라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지방행정론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경제학의 경우는 수험생 간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기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제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 및 교재 등을 여러 번 풀어보아, 다루지 않은 논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논점 찾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 기출, 교수님 사례집을 활용하였습니다. 일반론은 최대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 강사님들의 기본서를 중첩적으로 보면서 활용했습니다. 그 외 행정학, 정치학 및 선택과목은 논문 과목으로서 제가 어려워했던 과목이지만, 최대한 체계를 갖추고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서나 교과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통하거나 혼자서라도 답안을 항상 써보면서 그 감을 시험 기간까지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장기간의 수험생활에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 시간 정도 주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저는 아침 8시에 독서실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밤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12시에는 취침을 하는 것을 루틴으로 하여 이를 꾸준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신체 리듬이 다른 약속이나 모임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 루틴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산림동에서 공부하여 고시식당을 이용하였는데, 고시식당에서 일정한 식사 시간과 식습관을 유지하였던 것 역시 신체 리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신체 리듬이 상이하므로 저만의 루틴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이 불안함과 막연함을 크게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을 무조건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함과 막연함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많은 내용을 커버하려고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막연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집기사

● ‘2022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수와의 만남’ 온라인 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수와의 만남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다. 지난 2월21일에 진행된 온라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박정수 학장님의 환영사와 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10명의 교수님과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2022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요”



올해, 경제학부 동문회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야구점퍼)을 증정하였다. 이에 22학번 새내기들은 야구점퍼를 입고 찍은 인증사진과 함께 각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제대학 학생회 4월 1일 마당사업 진행



경제학과 학생회에서 경제학과 신입생의 교류를 위해 4월 1일 마당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4월 1일에 경제학과 야구점퍼를 입고 알바트로스 탑에 오는 학생들에게 경제대학 판넬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증정해주는 것이었으며, 준비한 필름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경제대학 학생회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응원 및 참여를 바란다.

교수동정

● 경제학부 교수 1년간(2021. 1. 1 ~ 현재)

주요 연구업적 (국제학술지)

- 우수국제학술지 등재논문

Ahn, Taehyun and Goh, Young Geun (2021). The Long Term Influences of Ability Mixing on Soft Skill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1

Kim, Yeonsu, Kang, Jisoo and **Chun, Hyunbae** (2022). Is Online Shopping Packaging Waste a Treat to the Environment. **Economics Letters**. 214

Chun, Hyunbae, Hur, Jung and Son, Nyeong Seon (2021). Global Value Chains and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58

Do, Jihwan, **Hur, Jung**, Hwang, Sung-Ha and Qiu, Larry D. (forthcoming). Tariff Diversity and FTA Network. **Review of World Economics**.

Son, Nyeong Seon and **Hur, Jung** (2022). An Empirical Study of Firm Productivity Growth Based on the Dynamic Selection Model: Effects on the Recent Decline in Korean Export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40(1)

Hur, Joon Young (2021). Labor Income Share and Economic Fluctuations: A Sign-restricted VAR Approach, **Economic Modeling**. 102

Hur, Joon Young and Kim, Kyung Hun (2022). Time-Varying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Capital Flows in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Yoo, Seulgi and **Jeon, Seonghoon** (forthcoming).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 Movie Industry: Efficiency versus Exclus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Park, Yeowoon, **Joo, Hailey Hayeon** and Moon, Junghoon

(forthcoming). Modeling the Demand across Three Major Protein Sources: Focusing on Seafood Protein. **Aquaculture Economics & Management**

Kim, Jinwon (2022). Does Roadwork Improve Road Speed? Evidence from Urban Freeways in Californi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93

Kim, Kyung-Hwan and Dong, You Seung (2021).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enure Transition Out of Homeownership in Kore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4

Kim, Kyung-Hwan, Hendershott, Patric, Lee, Jin Man and Shilling, James D. (2021). Announcement Effects: Taxation of Housing Capital Gains in Seoul.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62(3)

Kim, Yunjung and Hwang, Sun Ho (2021). International Output Synchronization at Different Frequencies. **Economic Modelling**. 104

Kim, Yunjung and Zhang, Jing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and Output. **IMF Economic Review**. 69(1)

Lee, Jinkwon and Min, Sujin (2021). The Effects of Repeated Induction of Emotions on Cooperation and Punishment. **Economic Inquiry**. 59(3)

Kim, Hyo Young and **Lee, Jinkwon** (2021). Distributive Fairnes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of a Group. **Applied Economics**. 53(11)

Sohn, Sungbin and Shu, Yaruo (2022). Idiosyncratic Return Variation: Firm-Specific Information or Noise? **Finance Research Letters**. 47

Hong, Ji Yeon, Park, Sunkyoung and **Yang, Hyunjoo** (forthcoming). In Strongman We Trus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Kim, Min Gyung and **Yang, Hyunjoo** (2021). Persistent Effects of Mega-events on Local Economies: An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Big Dat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6(12)

● 보직교수 인사



〈 박정수 경제대학장 /경제대학원장 〉



〈 김도영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 〉 〈 김홍균 경제대학원ESG 경제 주임 〉

2022년 2월부터 박정수 교수가 경제대학장, 경제대학원장(겸직)으로 임명되었으며, 김도영 교수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김홍균 교수가 경제대학원ESG 경제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 연구년 소식

정재식 교수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구학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공용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6개월간 연구학기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송의영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년간 연구학기를 가질 예정이다.

● 퇴임 소식

남준우 교수가 2022년 1학기 강의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남준우 교수는 1975년에 본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1984년 본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9년에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 남준우 교수 〉

다.

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1990년부터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으로 계량경제학회의 계량경제학보 편집위원장과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이영훈 교수,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연구 편집위원장 선임 (2022 3월~2024 2월) 및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에서 학술지 발간 시작



〈 이영훈 교수 〉

이영훈 교수가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편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인 『경제학연구』는 연4회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영훈 교수가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에서 2022년 3월부터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 김영철 교수, 한국계량경제학회 발행 학술지 Journal of Econometric Theory and Econometrics(JETEM)의 공동편집위원장에 선임



〈 김영철 교수 〉

김영철 교수가 한국계량경제학회 발행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 Theory and Econometrics(JETEM)의 공동편집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한국계량경제학회는 1986년에 창립된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연구 단체이다. 발행지인 JETEM은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1990년에 발간된 이후 경제이론 및 계량분야 연구 출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선임으로 김영철 교수는 향후 2년간 미시분야 투고 논문들에 대한 편집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김영철 교수는 지난 1월 학회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2년간 학회의 미시연구회

간사로서 미시경제 분야에 대한 학술 프로그램 조직 및 월례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김윤정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선임



〈양현주 교수〉

김윤정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이사에 임명되었다.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창립되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국의 경제

학 연구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의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 허준영 교수,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간사 선임



〈허준영 교수〉

허준영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간사에 임명되었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시카고 대학의 IGM Forum(igmchicago.org)을 모델로 하여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다. 이

토론장에서는 경제토론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경제 현안에 대한 설문에 패널이 답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현재 패널은 청람상 및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명예회장, 학회 학술지(경제학연구, KER,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회 구성원 중 참여에 동의한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 신입교수 임용



〈허준영 교수〉

경제학부는 2022년 1학기 손성빈 교수를 신입교수로 임용하였다. 손성빈 교수는 200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Berkeley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국 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매진해왔다. 손성빈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asset pricing, corporate finance이다.

● 경제학과 대학원생, 해외 우수 경제학 박사 프로그램 진학

경제학과 학·석사·박사과정 학생 6명이 해외 우수 경제학 박사 프로그램에 진학한다. 이번 학생들이 받은 어드미션 현황으로는 Arizona State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Emory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SUNY at Buffal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UC) Davis, UC Irvine, University of Georgia, University of Housto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Michigan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Texas Austin,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Washington, Virginia Tech, Templ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이다. 본교 경제대학에서는 매년 꾸준히 세계 우수 경제학 박사 프로그램에 우수한 유학 실적을 내고 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학부 정기세미나

2021년 2학기에 이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Fall 2021]

유동훈(9월 7일)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ISER), Osaka University

Incorporating Diagnostic Expectations into the New Keynesian Framework

이승훈(9월 14일)

MIT Sustainable Urbanization Lab

Household Responses to a Pigouvian Tax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Evidence from Food Waste

William F. Lincoln(9월 16일)

Claremont McKenna College

Exporting and Firm Value

Yu-Chin Hsu(9월 23일)

Academia Sinica

Introduction to Testing Monotonicity

Thang Dao(9월 28일)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ISER), Osaka University

Climate Change and the Slow Demographic Transition

Christopher Paik(10월 5일)

NYU Abu Dhabi

Old World Trade Diasporas

이정호(10월 7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Workplace Environment and Worker Sorting: Evidence from Advertised Corporate Culture

송수용(10월 12일)

University of Iowa

Estimating Quantile Production Functions: A Control Function Approach

김준형(10월 19일)

Jinan University

Substance Use Regulation: Long-Term Impa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edical Marijuana through the Changes in Parental Behavior

최진영(10월 21일)

Xiamen University

Old-Identified Doubly Robust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이선경(10월 26일)

Yale University

When Cities Grow: Urban Planning and Segregation in the Prewar US

강동익(11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oes Product Revenue Matter for Price Setting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명선하(11월 4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elf-financing, Parental Transfer and College Education

이명재(11월 11일)

고려대학교

OLS and IVE for Binary Treatment with Propensity or Instrument

Score Residual

황재학(11월 16일)

금융감독원

Climate Risk Assessment in Korean Financial Market

김종현(11월 23일)

기획재정부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Structural Reforms

이공(11월 29일)

KDI

An Economic Analysis of Mobility Service: from Demand for Taxis

조운호(12월 7일)

Jinan University

Stamping Out Stamp Duty: Property or Consumption Taxes?

허준영(12월 9일)

서강대학교

Exchange Rate Stability and Monetary Policy: A Markov-Switching DSGE Model for Small Open Economies

Basak Bayramoglu(12월 9일)

INRAE, University of Paris-Saclay

Are International Climate Aid Really Climate-Rela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porting of Donor Countries

강병훈(12월 14일)

University of Lancaster

Inference for GMM with Possibly Nonsmooth Moments under Misspecification

Hiroaki Sakamoto(12월 16일)

Kobe University

A Markov-Perfect Folk Theorem in A Class of Differential Games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51집 1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 51집 1호를 2022년도 3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 51집 1호

1. 지역별 노동시장의 효율성 격차와 요인분석

- 조운기(대진대학교), 권선희(대진대학교)

2.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한 한국의 자본이동관리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 김정훈(홍익대학교)

3. 미국 통화정책, 중앙은행 정보 및 금융 충격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부호 제약 SVAR 모형

- 서유정(에너지경제연구원)

4. 언론 보도 내용의 감성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김영준(상명대학교)



경제학부 단신

마리오-엄백용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가. 일시: 2021. 11. 15(월)
 나. 선발인원: 10명
 다. 장학금액: 10,000,000원(1인당 학업지원비 100만원씩)
 라. 선발방법: 학과장 면접(가정형편 및 성적)

2022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다. 선정 결과:
 - 금학기: 재무경제학 2명

2021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박도현(2015), 성유석(2016), 장민준(2018)
 나. 재무경제학: 홍승기(2016)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나. 선발인원: 45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증서와 상품(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

경제학부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 별 성적 상위 2명씩(금학기 휴학생 제외)
 나. 선발 인원: 10명
 다. 장학금: 학업지원비 100만원씩 총 1,000만원
 라. 장학금 기부자: 김상수 동문(81 경제)

[경제대학원 G-EnH 최고위과정]

Global EnH 최고위과정 제16기 수료식

- 가. 개최 일자: 2022년 9월 2일 예정
 나. 장소: GN514호

Global EnH 최고위과정 제17기 입학식

- 가. 개최 일자: 2022. 4. 8(금) 오후 5시30분
 나. 장소: GN-101호

경제대학원 소식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 가.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나. 장소: 교내 곤자가 플라자
 다. 주관: 경제대학원 총동문회
 라. 내용: 대학원 및 동문회 발전계획 소개, 공로상 및 2021 서강 경제대상 시상
 마. 수상자: 공로상(김병주, 김광두, 남성일, 이주태, 성대영, 구자관, 홍성열), 서강경제대상(사공용, 조태현)

2022학년도 전기(63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116명
 나. 합격 105명
 다. 최종 등록: 79명(신입생 77명, 편입생 2명)

제58기 학위수여식 개최

- (1) 일시: 2022년 2월 21일 16:00
 (2) 학위수여자: 총 39명
 (공공경제전공 3명, 공공의회경제 2명, 국제경제전공 2명, 금융경제전공 12명, 노동경제전공 3명, 정보, 기술경제전공 1명, 부동산경제전공 13명, 인공지능경제전공 3명)

전공	인원
공공경제	3
공공의회경제	2
국제경제	2
금융경제	12
노동경제	3
정보·기술경제전공	1
부동산경제	13
인공지능경제	3
합계	39

63회 신입생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가. 일시 : 2022.2.26.(토)

나. 장소 : 메이필드 호텔

다. 참석 :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69명), 경제대학 교수진 9명, 행정팀 직원 4명

2022학년도 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2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 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 고
원서접수	2022.05.02.(월) ~ 2022.05.10.(화)	2022.06.02.(목) ~ 2022.06.9.(목)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2.05.11(수) 17:00 까지	2022.06.10.(금)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2.05.20(금) 18:30 부터	2022.06.17(금) 18:30 부터	면접 전형일 1일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2.05.27.(금) 15:00 예정	2022.06.24.(수) 15:00 예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2.07월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합격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2.08.20.(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2022년 경제대학원 OLP 제24기 개강

지난 4월 7일 OLP 24기 입학식이 본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엔 개강하는 OLP 24기 과정은 매주 목요일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ESG 경영 및 투자, 메타버스,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흐름 등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OLP 24기의 주요 일정으로 5월과 6월 두 차례의 부부특강과 한 차례의 합숙 세미나를 실시하고 7월 14일 OLP 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과정을 운영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정규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LP 과정 소개

OLP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선물 제공

총동문회(회장 김광호)가 22학번 신입생 2천명 전원에게 학생들 선호도가 높고 실용적인 '보조배터리'를 입학 기념 선물로 제공했다. '보조배터리'에는 총동문회 원형 로고가 새겨져 있다. 총동문회 선물은 모교에서 마련한 '입학 기념 선물 키트'에 포함되어 신입생들에게 배송되었다. '입학 선물 키트'에는 총동문회의 '보조배터리'를 비롯하여 입학증서, 학교 마스코트 스티커, 탁상용 달력, 다이어리, 에코백, 새내기 생활백서, 동아리 소개책자, 노트 등 다양한 선물이 담겨있다. 모교가 신입생에게 제공하는 '입학 기념 선물 키트'는 코로나19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두 번째 제공한 것이다.

사공용(78 경제) 경제학 교수, 조태현(경제대학원 33기) 동문, 2021 서강경제대상 수상

사공용(78 경제) 경제학 교수, 조태현(경제대학원 33기) 동문이 경제대학원(원장 박노선)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신명식 경제대학원 32기)가 주관하는 '2021 서강 경제대상 수 상자'에 선정됐다. 서강경제 대상은 자유 시장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와 국가경제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다. 사공용 교수는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및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시장기반 지속 가능한 농업경제를 주장해 온 농업경제학자다. 조 동문은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경제 연구소 부장과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을 역임했다. 삼성생명 기획팀장(상무)에 이어 현재는 AFC사업부

영업총괄을 맡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개원 30주년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문동정

- 이강행(79 경제)

이강행(79 경제) 동문이 12월17일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동원증권에 입사했다.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개인고객 그룹 장을 역임했다.

- 김영진(84 경제)

김영진(84 경제) 동문이 산업은행 부행장으로 12월 22일 승진했다. 김 동문은 1966년생으로 모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미(美) 일리노이대에서 재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선릉지점장, 2017년 심사1부 수석 심사 전문위원, 2019년 영업기획부장을 거쳐 올해 2021년 강북지역본부장으로 발탁된 뒤 이번 인사에서 다시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 김범호(85 경제)

김범호(85 경제) 동문이 인천공항공사 미래사업 본부장에 선임됐다. 김 동문은 1994년 인천공항사에 입사해 사업개발단장, 사업마케팅 처장, 인사노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 오진석(85 경제)

오진석(85 경제) 동문이 12월 1일 GS리테일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오 동문은 LG화학 자금팀을 거쳐 LG백화점에서 25년 간 재무관리자로서 성과를 보였다. GS리테일의 편의점사업부장(부사장)을 역임했다.

- 윤영석(86 경제)

윤영석(86 경제) 동문이 국세청 전산정보 관리관으로 승진했다. 윤 동문은 행정고시 41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법인세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지냈다.

- 정종태(87 정치)

정종태(87정치)동문이 지난 3월2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으로 선임되었다. 정 동문은1995년 한국경제신문 입사 후 경제부 차장, 증권부장, 편집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일선 기자 시절 한국 언론재단 '이달의 기자상'과 '삼성 언론상'등을 받았다.

- 김종민(96 경제)

김종민(96 경제) 동문이 12월17일 메리츠화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14년 삼성증권에서 메리츠화재로 자리를 옮긴 뒤 자산운용을 직접 총괄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은 3분기 기준 4.1%로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24.5%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가 이번 인사에 크게 작용하여 김 동문은 자산운용실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영지(04 경제)

김영지(04 경제) 동문이 11월 17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세계기업가정신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2021년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1)'에서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북한이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 분야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동문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산업개발 T-EMS 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동문은 수상 소감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남북 교류뿐 아니라 신 북방, 신 남방 지역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미란(04 경제)

조미란(04 경제) 동문이 1월 3일 제45대 충북남부보훈지청장으로 취임한다. 조 동문은 행정고시 53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초청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제대군인정책과,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등을 역임했다.

- 김성재 (87 경제)

김성재 (87 경제) 동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한국경제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서실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력을 쌓았다. 임기는 2년이다.

- 최중현(90 경제)

최중현 (90 경제) 동문이 앤씨앤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최 동문은 자산관리공사(KAMCO)와 에스브이파트너스 등을 거쳐 2005년 앤씨앤 경영기획팀장으로 입사한 뒤, 내부 승진을 통해 CFO(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앤씨앤그룹은 자동차 관련 세트(완제품) 제조 기술(앤씨앤 블랙박스),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기술(넥스트칩), 자율주차 소프트웨어 기술(베이다스) 등을 보유한 기업이다.

- 황성혜(경제대학원 15기)

황성혜(경제대학원 15기) 동문이 한국 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내정되었다. 황 동문의 선임은 이번 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 동문은 2008년 화이자 대외협력부로 입사 후, 대외협력부 총괄, 약가팀 총괄 겸임을 거쳤다. 아직 직전까지 화이자의 전무로서 MA팀을 이끌었다.

- 구권희(경제대학원 20기)

구권희(경제대학원 20기) 동문이 3일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장으로 취임했다. 구 동문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2016년 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직전 농협은행 서교동 지점장을 역임했다.

- 성대영(경제대학원 31기)

성대영(경제대학원 31기) 동문이 경기 안산의 한도병원을 인수, 11월 1일자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성 동문은 석경의료재단의 이사장이자 워더스 제약의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성 동문은 "한도병원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지역료서비스의 공백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학과와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김길수 동문이 1000만원을, 김환균 동문이 개인 1000만원 및 아셈자산운용(주)에서 1000만원을, 김연호 동문이 100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 외 기탁해 주신 서강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1.09.01.~2022.02.28.)

학부 동문 김길수, 김환균, 문용호, 박선영, 유경윤, 정진화

교직원 곽노선, 김종화, 전덕희

G-Enh 동문 김연호

서강의 벗 김준석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